



2010년, 자동차책임보험 등장 후 최대 적자 기록

왕양비 연구원

- 8월 4일 보험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자동차책임보험 재무정산보고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자동차책임보험은 72억 위안(약 1.2조 원)에 달하는 적자로 2006년 동 보험이 등장한 후 최악의 적자액을 기록함.
 -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자동차책임보험은 25억 위안의 투자영업 이익이 발생하였으나, 97억 위안의 보험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보험금 지급률은 82.3%로 나타남.
 - 또한, 자동차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33개 손해보험회사 중 새로 설립된 소형 손해보험 1개사만을 제외한 32개사 모두가 적자를 기록함.
 - 이에 따라 2010년 중국 자동차책임보험은 72억 위안 적자로 기록된 가운데, 이는 자동차책임보험 정식 시행 후 4년래 최대 적자액으로 기록됨.
 - 보험감독위원회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2007년, 2008년, 2009년 자동차책임보험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-39억 위안, 18억 위안, -53억 위안으로 기록됨.

-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 정식 실시된 후, 보험가입자가 많아지고 사업비 비율도 낮아졌으나, 무사고 시의 보험료 인하제도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와 주민들의 수입 증가로 보험금지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책임보험의 적자폭이 증가함.
 - 2006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이 후 4년 간 동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6,178만 대에서 1억 대로 증가하였고, 사업비 비율은 39.2%에서 30.6%로 절감됨(2007년~10년 연말 기준).
 -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무사고 시의 보험료 인하제도 실시로 매년 평균 86%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, 61%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년 보험료의 30%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 가입자의 1일당 평균 보험료는 2007년 1,460 위안에서 2010년 1,074 위안까지 하락함.
 - 한편, 자동차책임보험 지급보험금 중 사망보험금과 불구상해보험금 부분은 각 지방의 1일당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서부 내륙지방보다 동부지방 보험회사의 적자가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남.

● 뿐만 아니라,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책임보험의 평균 지급보험금은 2007~2010년 동안 3,498위안에서 4,930위안으로 41% 증가했고, 보험금 지급상한도 6만 위안에서 12만 2,000위안으로 인상됨.

■ 그 결과, 보험감독위원회가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책임보험 허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, 아직까지는 정확한 허용 시간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를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(상해금융보, 화선 재경 등 8/7)